

유튜브 광고제작을 위한 컨셉 설정

광고 길이 : 30초 분량

1. 제품 컨셉

- 탁상용 무선 선풍기
- 제품명 : ÉOLIAN (에올리안) - 가제
- 컨셉 헤드라인

패션 오브제에서 뷰티·무드 연출까지, 다층적 라이프스타일 융합 제품

세부 컨셉

패션·소품화 (외관 & 협업)

패션 브랜드 협업과 소재·패턴 커스터마이징으로 선풍기를 액세서리처럼 재해석.
“이게 선풍기야?”라는 놀라움을 줄 만큼 패션 오브제로 자리매김.

휴대 & 착용 스타일

토트백, 파우치 같은 소품 형태로 들고 다니며 스타일을 완성.
사용 방식 자체가 하나의 패션 연출 요소가 되도록 확장.

뷰티 & 라이프스타일 융합

뷰티 거울, 조명, 아로마 등 뷰티 브랜드 협업으로 감성을 강화.
선풍기가 단순 기기가 아닌 뷰티 소품·라이프 아이템으로 변모.

아트 & 무드 연출

빛과 바람, 직조 그릴 등으로 공간을 꾸미는 감각적 오브제.
아트·무드 연출을 통해 패션과 공간을 연결하는 새로운 경험 제안.

제품 이미지



ÉOLIAN 30초 유튜브 광고 콘셉트 아이디어 1

“이게 선풍기야?” 패션 오브제로의 반전

1 콘셉트 핵심 정의

ÉOLIAN은 단순한 탁상용 선풍기가 아니라, 패션과 감각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라이프스타일 오브제다.

이번 광고는 그 혁신적인 포지셔닝을 시청자에게 **“놀라움”과 “재발견의 쾌감”**으로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.

즉, 사람들에게 익숙한 ‘선풍기’라는 제품군에 패션적 언어를 입혀,

“이건 공기를 움직이는 기기가 아니라, 감각을 움직이는 아이템이다”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.

따라서 광고의 구조는 **‘패션 필름 → 반전 → 감성 인지 → 브랜드 각인’**의 흐름으로 설계된다.

처음 20초 동안은 패션 브랜드의 룩북이나 뷰티 캠페인처럼 보여야 하고,

마지막 5초에서야 제품의 정체를 드러내는 **‘반전형 내러티브’**가 중심이다.

2 비주얼 콘셉트 &연출 톤

광고는 “감각적 착각”을 중심으로 구성된다.

ÉOLIAN이 등장하는 모든 장면은 패션 혹은 뷰티 화보의 일부처럼 연출되어야 한다.

그 어떤 컷에서도 ‘선풍기’로 보이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.

- **컬러 톤:** 미드톤 중심의 뉴트럴 팔레트 (화이트, 샌드, 블러시 핑크, 새틴 실버)
→ 빛 반사와 그림자를 강조하여 **오브제의 형태미**를 극대화
- **조명:** 부드러운 디퓨즈 조명 + 반사광 포인트로 금속의 질감과 표면 곡선 강조
- **촬영 스타일:** 슬로모션, 팬 포커스 전환, 모델의 손 제스처 중심 클로즈업
- **편집 리듬:** 2~3초 단위의 패션 필름 템포 — 감각적으로 전개되다, 25초 이후에 급격히 전환

이 영상의 톤은 명확히 **‘제품 광고가 아닌 감성 브랜드 필름’**처럼 보여야 한다.

시청자가 “광고 같다”고 느끼는 순간, 이 콘셉트는 힘을 잃는다.

3 시나리오 구조 (30초 구성안)

▪ 00:00 ~ 00:08 | 오프닝 — 패션 필름의 착각

화려한 조명 아래 런웨이 리허설 장면.

모델이 해어와 메이크업을 손보며,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인다.

그녀의 옆 테이블 위, 새틴 질감의 둥근 오브제가 살짝 비친다.

그러나 누구도 그것을 ‘선풍기’라고 생각하지 않는다.

배경음악은 몽환적인 일렉트로닉 비트.

¶ 대레이션(속삭이는 톤):

“패션은 공기를 입는다.”

▪ 00:09 ~ 00:17 | 전개 — 오브제로서의 존재감

장면이 전환된다.

모델의 드레스 사이로 은은히 회전하는 빛의 패턴이 비치고,

그 빛이 얼굴과 머리카락에 반사되어 ‘바람의 존재’를 암시한다.

제품은 여전히 ‘패션 소품’처럼만 비춰진다.

빛, 실루엣, 그리고 미묘한 움직임이 어우러져 하나의 설치미술처럼 보인다.

¶ 대레이션:

“빛으로, 공기로, 감각으로 표현되는 새로운 스타일.”

▪ 00:18 ~ 00:25 | 반전 — ‘사실, 선풍기입니다’

카메라가 천천히 제품의 표면을 따라 회전한다.

그 순간, 부드럽게 회전하는 팬 블레이드가 드러나며, 바람이 모델의 머리카락을 스치고 조명이 흔들리듯 반사된다.

음악이 순간적으로 멈춘 뒤, 깨끗한 공기 소리와 함께 짧은 문장이 뜬다.

● 자막: “사실, 선풍기입니다 — ÉOLIAN.”

¶ 대레이션:

“패션에서 시작된, 감각의 바람.”

▪ 00:26 ~ 00:30 | 클로징 — 브랜드 감성 확립

브랜드 로고 ÉOLIAN이 등장하면서, 제품이 천천히 회전하며

빛과 바람의 결을 따라 하나의 조각 작품처럼 보여진다.

배경은 툰다운된 화이트 — 단 하나의 문장만 남긴다.

● 자막: “Style the Air.”

¶ 대레이션: “ÉOLIAN — 바람까지 디자인하다.”

4 메시지 구조 (브랜드 스토리라인)

이 광고는 단순히 제품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,

‘공기의 미학’을 패션 언어로 번역한 브랜드 철학을 전달한다.

시청자는 “예쁘다”가 아니라 “감각적이다”, “새롭다”, “이건 뭐지?”라는 호기심을 느끼도록 설계되어야 한다.

핵심 메시지 구조는 다음과 같다:

구간	감정 키워드	전달 의도
0~8초	호기심	패션 필름처럼 시작 → 정체 불명 오브제의 매력
9~17초	감각적 몰입	빛과 움직임으로 미적 경험 유도
18~25초	반전과 인지	“선풍기였다”는 놀라움으로 기억 각인
26~30초	브랜드 신뢰감	ÉOLIAN의 프리미엄 감성 강조

5 촬영 및 사운드 디렉션

• **카메라 무브먼트:** 슬라이드 인 → 틸트 다운 → 팬 트래킹 → 서서히 회전하며 정지 (모델의 움직임과 제품의 회전이 시각적으로 싱크되게 연출)

• **사운드:**

초반엔 섬세한 패션쇼 앰비언스 (카메라 셔터, 구두 소리 등) →

중반부 일렉트로닉 사운드 → 마지막엔 깨끗한 공기 흐름과 함께 로고 사운드.

• **조명:**

제품 표면에 반사광이 리듬감 있게 움직이도록 세팅.

금속 재질과 직조 그릴의 질감이 부드럽게 표현되게 한다.

6 브랜드 인지 효과

이 광고는 “제품을 보았다”가 아니라,

“경험했다”는 감각적 기억을 남기는 것을 목표로 한다.

즉, 단순히 구매를 유도하기보다 ÉOLIAN 브랜드의 감성적 차별성을 각인시킨다.

- 일반 가전 광고의 기능 중심 접근과 달리, 패션 브랜드의 정체성 확장형 포맷으로 인식.
- SNS나 유튜브 쇼츠에서 스크롤을 멈추게 하는 비주얼 임팩트 중심 설계.
- “이게 선풍기야?”라는 반응 자체가 광고의 바이럴 포인트로 작용.

7 마무리 요약

ÉOLIAN은 ‘바람을 디자인하는 패션 오브제’다.

이 광고는 기능을 설명하지 않는다. 대신 감성을 입힌다.

시청자는 제품을 기억하기 전에, 그 분위기와 감각을 먼저 기억하게 된다.

☞ 핵심 문장 요약:

“패션의 언어로 기술을 말하고, 감각의 언어로 바람을 디자인한다.”

ÉOLIAN 30초 광고 아이디어 2

“이게 선풍기야?” — 문득 드러나는 감각의 순간

“바쁜 하루 속, 공기까지 스타일링하다.”

1 콘셉트 핵심 정의

이 버전은 화려한 세트나 런웨이가 아닌, 현대인의 일상을 무대로 한다.

지하철, 카페, 사무실, 침실 — 늘 반복되는 일상 공간 속에서

ÉOLIAN은 자연스럽게 존재하지만 그 정체를 쉽게 알아차릴 수 없는 감각적 오브제로 등장한다.

즉, 시청자는 광고를 보는 내내 “저게 뭐지? 조명인가? 미니 오디오인가?”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야 그것이 선풍기임을 깨닫는다.

그 순간 ‘감성의 반전’과 함께 브랜드의 정체성이 확인된다.

핵심 포인트는 “일상 속의 낯선 감성” —

ÉOLIAN이 주는 작은 여유, 숨 쉴 틈, 그리고 미적인 일상감각을 전달한다.

2 광고 구조 (30초 구성안)

- 00:00 ~ 00:07 | 오프닝 — 출근길의 무표정한 얼굴들

지하철 안, 피곤한 직장인들.

모두 스마트폰을 보거나 멍하니 서 있다.

카메라가 한 여성 직장인을 따라간다.

그녀는 회사에 도착해 자리에 앉는다.

책상 위, 미니멀한 둥근 오브제가 보인다.

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전원을 놀려둔다.

▣ 매레이션 (잔잔하게):

“바쁜 하루, 공기마저 정지한 듯한 순간들.”

- 00:08 ~ 00:17 | 전개 — 공기가 달라지는 순간

그녀의 머리카락이 살짝 흔들리고, 조명 아래의 서류가 부드럽게 움직인다.

공간의 공기가 달라지며 분위기가 조금씩 변한다.

카메라가 오브제를 스쳐 지나가지만, 여전히 그게 ‘선풍기’인지 알 수 없다.

옆자리 동료가 잠깐 시선을 멈추고 묻는다.

● 대사: “이거 조명 예쁘다, 어디서 샀어?”

● 주인공 미소: “이거... 선풍기야.”

순간 정적 — 동료가 놀란 듯 다시 바라본다.

▣ 매레이션:

“공기를 새롭게 디자인하다.”

- 00:18 ~ 00:25 | 반전 — 일상 속 감각적 발견

카메라가 천천히 줌인.

제품 표면의 패턴과 미묘한 회전이 드러나며

빛과 바람이 공간을 감싼다.

지하철 소음 대신 부드러운 바람 소리로 전환된다.

사무실 풍경이 갑자기 여유롭고 따뜻하게 변한다.

● 자막: “이게 선풍기야?”

▣ 매레이션: “ÉOLIAN — 바쁜 하루 속 감성의 여유.”

- 00:26 ~ 00:30 | 클로징 — 감성적 마무리

카메라가 제품 위로 천천히 올라가며
빛과 그림자가 교차하는 정적인 클로즈업.
로고가 부드럽게 등장하며 한 줄의 문장이 남는다.

- 자막: “Everyday, beautifully.”
- 대레이션: “ÉOLIAN — 일상을 디자인하다.”

3 연출 포인트

요소	연출 의도
공간 톤	실제 직장/지하철/카페 등 일상 공간 — ‘리얼 무드’ 중심
조명 스타일	자연광 + 따뜻한 톤 → 제품의 재질감이 은은하게 드러나게
카메라 무드	다큐멘터리형 핸드헬드 + 슬로모션 클로즈업 병행
음악	일상 소음 → 중반부부터 피아노와 공기음이 섞인 잔잔한 사운드로 전환
색조	초반엔 회색빛 현실감, 후반엔 따뜻한 뉴트럴톤으로 변환 (감정 전환 시각화)

4 감정선 구조

구간	감정	연출 키워드	브랜드 의미
0~7초	무감각한 일상	정지된 공기, 반복	현실의 단조로움
8~17초	발견과 호기심	머리카락, 빛의 움직임	감성의 징후
18~25초	놀라움과 미소	“이게 선풍기야?”	반전과 감각의 전환
26~30초	안정과 여운	정적인 클로징, 음악 여운	일상 속 감성 회복

5 브랜드 메시지 구조

이 영상은 제품이 아니라 ‘일상의 감정 변화’를 광고한다.
즉, ÉOLIAN은 기능을 팔지 않는다.
그 대신, 바쁜 현대인에게 잠시 공기를 새로 느끼는 여유를 제안한다.
핵심 메시지는 다음과 같다:

- “당신의 일상 속에도, 감각의 틈은 존재한다.
- ÉOLIAN은 그 틈을 부드럽게 연다.”

6 콘셉트 톤 요약

- 테마: 바쁜 일상 속에서 ‘감성의 공기’를 발견하는 순간
- 키워드: 현실감 / 반전 / 감성적 여백 / 따뜻한 시선
- 타깃: 20~40대 감성 소비층 (패션, 뷰티, 인테리어 관심층)
- 비주얼 무드: 미니멀 + 감각적 내추럴리즘
- 핵심 문구:
 - “이게 선풍기야?”
 - “공기를 디자인하다.”
 - “Everyday, beautifully.”

7 브랜드 포지션 효과

이 광고는 ÉOLIAN을 ‘패션 오브제’에서 ‘일상 오브제’로 확장시키는 교두보가 된다.

즉, 이전 콘셉트들이 ‘비주얼 중심의 고감도 브랜드’였다면,
이번 버전은 **현실 속 감성 공명**을 일으키는 형태다.

- “갖고 싶다”가 아니라 “내 책상 위에 두고 싶다”라는 욕구로 연결됨.
- 기능형 가전 → 감성형 라이프 오브제로 전환
- 짧은 쇼츠 광고나 인스타 릴스용으로도 변형 가능 (15초/6초 버전 확장 가능)

☞ 한줄 정리 문장:

“ÉOLIAN은 당신의 일상 한가운데서, 공기처럼 자연스럽게 감성을 전한다.”

ĒOLIAN 유튜브 광고 30초 스토리보드

제목: “카페의 오후 — 이게 선풍기야?”

런닝타임: 30초

컨셉 문장:

“바쁜 일상 속, 공기까지 스타일링하다.”

— 감각의 반전으로 완성되는 따뜻한 일상 미학

▣ 전체 구조 요약

구간	구성	시간	감정 키워드	톤 & 무드
①	오프닝	0~7초	여유, 고요	따뜻한 자연광, 미니멀
②	전개	8~17초	변화, 호기심	공기의 움직임, 감성 전환
③	반전	18~25초	놀라움, 미소	시각적 반전, 빛의 미학
④	클로징	26~30초	여운, 감성 회복	부드러운 여운, 브랜드 각인

▣ 시나리오 & 스토리보드 상세

① 0~7초 | 오프닝 — 평범한 오후의 카페

장소: 햇살이 드는 감성 카페

배경음: 주변 대화, 커피 머신 소리, 잔잔한 피아노 시작

▣ 컷1 (Wide / Establishing Shot)

- 부드러운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온다.
- 바리스타가 커피를 내리고, 스팀이 피어오른다.
- 공기 중 먼지가 빛에 반짝이며 ‘감각적 공기’의 톤을 암시.

▣ 컷2 (Medium Shot)

- 한 여성이 창가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두드린다.
- 테이블 위에는 노트, 커피잔, 그리고 ÉOLIAN이 자연스럽게 놓여 있다.
- 카메라는 ÉOLIAN을 지나치듯 스쳐 간다. (아직 정체를 모름)

▣ 내레이션 (여성 속삭이듯)

“하루 중 가장 고요한 순간, 공기마저 쉬어가는 시간.”

② 8~17초 | 전개 — 공기가 달라지는 순간

장소: 같은 카페, 오후 햇살이 더 짙어짐

음악: 미세한 피아노 멜로디 + 공기 흐르는 사운드 믹스

▣ 컷3 (Close-up / Slow motion)

- 여성의 손끝이 ÉOLIAN 버튼을 가볍게 누른다.
- 팬이 회전하기 시작하지만, 바람이 아닌 빛의 움직임으로 표현.(빛이 천천히 회전하며 주변 사물을 비춘다.)

▣ 컷4 (Medium / Two-shot)

- 그녀의 머리카락이 부드럽게 흔들린다.
- 옆자리 친구가 미소를 띠며 묻는다.
 - “이거, 조명 예쁘다. 어디서 샀어?”
 - 카메라는 살짝 흔들리며 현실감을 강조 (핸드헬드 스타일)

▣ 여주인공 대사 (미소하며)

“이거… 선풍기야.”

▣ 내레이션

“ÉOLIAN, 공기를 디자인하다.”

③ 18~25초 | 반전 — 빛과 바람의 미학

장소: 카페 전체가 따뜻한 공기로 감싸이는 듯한 분위기

음악: 일렉 피아노 + 깨끗한 공기음으로 전환

■ **컷5 (Extreme Close-up)**

- ÉOLIAN 표면의 **직조 패턴**이 빛을 반사하며 회전.
- 슬로모션으로 공기의 결을 시각화 (머리카락·커튼의 미묘한 움직임).

■ **컷6 (Over-the-shoulder Shot)**

- 창가의 커튼이 흔들리고, 커피잔 표면의 물결이 일렁인다.
- 공기가 ‘보이는 듯한’ 감각적 연출.
- 옆자리 고객이 놀라며 다시 한번 바라본다.

■ **자막:**

“이게 선풍기야?”

■ **내레이션 (잔잔하게)**

“바람 속의 여유, ÉOLIAN.”

① 26~30초 | 클로징 — 감성의 잔상

음악: 피아노 소리 잊어버리며, 바람소리로 마무리

조명: ÉOLIAN의 빛만 남은 듯한 부드러운 톤다운

■ **컷7 (Hero Shot / Close-up)**

- ÉOLIAN이 천천히 회전하며, 빛이 반사되어 표면이 반짝인다.
- 주변 소음은 모두 사라지고 ‘공기 흐름’만 남는다.

■ **자막:**

“Everyday, beautifully.”

■ **내레이션 (속삭이듯)**

“ÉOLIAN — 일상을 디자인하다.”

■ **컷8 (Logo Reveal / Fade out)**

- 흰 배경 위에 로고 등장
- 공기가 부드럽게 흘러가는 듯한 효과음과 함께 마무리

비주얼·사운드 디렉션 요약

항목 연출 포인트

색감 톤 뉴트럴 크림·샌드·소프트 브라운 계열 (햇살 톤)

조명 스타일 자연광 + 반사광, 피사체 주변에 미세한 헤이즈 연출

카메라 무브 부드러운 팬 + 슬로모션, 감정선 중심의 인물 클로즈업

음악 구조 카페 소음 → 잔잔한 피아노 → 공기음과 함께 페이드아웃

감정선 고요 → 변화의 미묘함 → 놀라움 → 감성 여운

□ 메시지 흐름 구조 (인지의 곡선)

단계 감정 상태 관객 반응 메시지 포인트

- ① “평범한 오후네.” 일상 공감 현실감 확보
“뭔가 분위기가 바뀌었 미묘한 변화 감”
- ② “다.” 지 공기의 감성화
- ③ “선풍기였다고?” 놀라움, 호기심 감각의 반전 브랜드 신뢰감 강화
- ④ “예쁘다… 감성 있다.” 감정 여운